

월간 **이키방** 10월호

亞문화전당 착공 10년
광주 동구는 어떻게 변했나

민중사학자 이이화 '초대석'...유시민 '책과 삶'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착공 10년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10월 완공을 앞둔 문화전당의 에너지는 광주 도심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쇠락하던 동구의 빈집들은 공방이나 카페로 변하고 있고 폐가도 새주인을 맞고 있다. 광주의 근대가 응결돼 있는 양림동에도 문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월간 '예향' 10월호에서는 특집으로 문화전당 착공 이래 새로운 삶터로 변해가고 있는 동구 지역을 둘러보고 문화 1번지를 꿈꾸는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봤다.

기획으로는 최근 영화 '명량'의 흥행으로 활영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남도를 둘러봤다. 완도·진도·해남 등 '명량'의 촬영장에서 영화 속 명장면을 찾아보는 재미와 함께 전남 영상위원회가 주최한 영화인들의 팸투어 현장을 찾아 남도의 우수성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필요한 준비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민중사학자 이이화 선생을 만나 역사를 보는 혜안을 듣고 평생 재야학자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마주 앉은 책과 삶'에서는 민주화운동가, 칼럼니스트, 방송인, 정당인,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본업인 문필가로 돌아온 유시민 작가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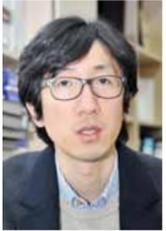
'이달의 아티스트' 코너에서는 21년 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를 통해 스타로 떠오른 후 무대와 브라운관을 오가며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악인 오정해씨를 만나 그녀의 소리 인생을 들여볼 수 있었다.

'해외 문화 기행'에서는 동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대만 타이베이 시립 동물원을 찾아 국내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남도문화여지도'에서는 골 깊고 물 맑은 땅 곡성의 역사와 문화, 맛을 찾아 떠나고, '우리 땅 속살 여행' 코너에서는 월출산을 타고 흐르는 氣의 고장을 영암을 둘러봤다. '스타 데이트'에서는 제대후 영화 '군도 : 민란의 시대', '두근두근 내 인생'을 통해 팬들 곁으로 돌아온 배우 강동원을 인터뷰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신형철 '시장에서 예술하기' 강연

별장 프로젝트 오늘 대인시장내



'물락의 에티카', '느낌의 공동체'의 저자 신형철 문학평론가 겸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30일 오후 7시 광주대인예술시장 내 상인회교육장에서 강연한다.

주제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시장에서 예술하기에 대한 단상'이다.

이날 강연은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별장 프로젝트 팀이 마련했다.

신 교수는 "넓은 의미에서의 시장은 예술 활동의 본질과 깊이 닿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시장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예술 행위들이 갖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강연은 무료다. 문의 062-233-14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우리의 ‘방해’가 예술가들에 즐거운 자극 될 것”

‘더나비 프로젝트’

임보현·송재영·박은지씨
실험적 문화 웹 매거진
‘시간과 공간에...’ 제작



광주 지역 작가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방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송재영(왼쪽), 임보현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달 전 좀 메일 한통을 받았다. ‘더나비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작업실 등 작가가 초대하는 공간으로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획이었다. 함께 첨부된 웹매거진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방해’를 클릭했다. 사진작가 이세현, 작가려운, 영화감독 송민주를 인터뷰한 70페이지 분량의 집지는 흥미로웠다.

만드는 이들이 궁금해졌다. 주인공은 임보현(30), 송재영(32), 박은지(23)씨다

세 사람은 올해 광주여성재단이 진행한 여성 친화도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선정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팀 이름 ‘더나비’는 ‘더하고 나누며 비전을 실천하는 여성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험적 문화 잡지를 표방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방해’는 현재 2호까지 나왔으며 매회 3명의 예술인을 다루고 있다.

지난 2012년 시장신문을 함께 만들며 인연을 맺은 이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만나고 그들을 홍보하고 싶었다. 작가들의 예술감성과 철학을 소개하고 싶기도 했다.

섭의 대상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20~40대 예술인들. 장르와 관계 없이 창의력을 갖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을 찾아 당신이 좋아하는 공간, 우리를 초대하고 싶은 공간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그들의 작업공간, 휴식공간, 영감을 준 공간, 의미 있는 공간에서 만남이 진행됐다. 지금까지 화가, 싱어송라이터, 영화감독 등을 만났고, 앞으로 건축가, 푸드스타일리스트, 북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군을 만날 계획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알음알음으로 사람을 소개받았죠. 처음 제안을 했을 때 의외로 저희와의 만남을 좋아하고 흔쾌히 응해줬어요. 재미있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작가가 머무는 공간이 삶이 묻어나고 몸과 같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 공간 자체, 그 곳에 놓여 있는 오브제가 모두 삶이고 이야기죠. 환상적이고 신나는 경험이었어요.”(송재영)

화가·영화감독·소설가 등
매회 다양한 직업군 찾아가
12월 책 출간 후 북 콘서트

람들이었어요. 알음알음으로 사람을 소개받았죠. 처음 제안을 했을 때 의외로 저희와의 만남을 좋아하고 흔쾌히 응해줬어요. 재미있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작가가 머무는 공간이 삶이 묻어나고 몸과 같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 공간 자체, 그 곳에 놓여 있는 오브제가 모두 삶이고 이야기죠. 환상적이고 신나는 경험이었어요.”(송재영)

막 나온 2호에서는 2012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녹(綠)’으로 당선된 소설가 김용두(본명 김용태)씨를 만났다. 노대동 한 커 피습에서 글을 쓰는 그와 찾아가는 공간은 그가 자주 거니는 노대제 산책로였다.

한창 열리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포토폴리오 공모전에서 당선된 ‘사라진 풍경’의 박세희 작가도 만났다. 100년 넘는 계림동의 한옥 작업실에서 만난 박 작가의 작업 공간에서는 이번 전시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을 수 있어 현재 광주비엔날레 도슨트로 일하고 있는 재영씨에게 특히 의미있었다. 또 싱어송라이터 박소영이 다섯 살때부터 즐겼던 살아온 아파트 공간에서는 늦깎이 미대생으로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첫 솔로 앨범 ‘상실의 기록’을 내놓은 뮤지션으로의 그녀의 삶을 엿보았다. 인터뷰 후에는 작가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글을 쓰는 재영씨는 동덕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갖고 싶어하기에 김용두 작가를 취재하면서 즐겨왔고 자극도 됐다. 사진을 맡고 있는 보현씨는 상명대 영화학과를 졸업했다. 편집 담당인 은지씨는 일러스트에 관심이 많아 대인시장에서 제작하는 ‘월간 채소’를

만들고 있다. “저희들의 ‘방해’가 예술작가들에게 또 다른 모티브의 시작이기를 기대해요. 젊은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 우리가 매개체가 돼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들과 대화를 나눴던 이들이 점점 더 큰 꿈을 이뤄나가는 것을 보는 것도 흥미로워요. 2호가 1호보다 실험적이고 다양하다는 평가를 받아 조금 자신감도 생겼네요.(웃음)”(송재영·임보현)

웹진은 앞으로 4회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1호와 2호를 엮어 샘플북을 만들고 12월에 정식으로 책을 펴낸 후 북 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지원금은 30만원이다.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의 후원이 있기는 했지만 ‘단돈’ 30만원으로 이처럼 흥미롭고,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젊은이들의 도전에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 blog.naver.com/the-navi, facebook.com/thenabiproject.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2회 무등산사랑 사생실기대회’ 개최

광주민족미술인협 내달 18일

광주민족미술인협회는 오는 10월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무등산 국립공원 내 원효사 계곡 일원에서 ‘제2회 무등산사랑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포함한 시·도민들에게 자연환경 보존과 호남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무등산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

해 마련한 행사다. 참가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 중 소속 학교 장 및 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미술 대학생, 일반 시·도민 등 1000여명이다. 참가신청은 10월1~15일이다. 이번 행사는 풍경화 부문과 무등가족 스마트폰 사진콘테스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문의 062-228-333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3~24세 할인 ‘문화·예술인패스 제도’ 시범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는 내달 1일부터 젊은이들과 예술인들의 문화 향유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 패스’는 다양한 청소년 할인제도를 통합해 할인 연령을 13~24세 청소년 및 대학생으로 확대해 일원화하려는 취지다. 연령과 신분 확인을 거쳐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 향유시 30% 내외의 할

인율을 적용한다. ‘예술인 패스’는 문화와 시각예술, 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 종사자들 가운데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발급하며, ‘문화 패스’와 동일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순수예술 분야 법인 소속 정회원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장,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대상이며, 패스는 현재 8913명에게 발급돼 내달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www.ncas.or.kr /연합뉴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SPACE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